

대상: 주부, 청소년 상담사 (50세)

일자: 19.11.13 16:14~17:00 (46분)

내용:

1. 현재 상태
  - A. 근시가 있음
  - B. 피곤한 정도에 따라 상태가 달라짐
    - i. 피곤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임
    - ii. 피곤할 경우 가까이 있는 물체가 2~3개로 나뉘어서 보이고, 밤길이 잘 안보임
2. 노안으로 인해 속상했던 점
  - A. 나이 들었다는 게 실감
  - B. 책을 보거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
  - C. 머리가 아프고, 어지럽기도 하며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음
3. 메신저 앱 관련
  - A. 사용빈도
    - i. 메신저 앱은 자주 쓰는 편, 대부분의 연락은 카톡을 사용. 주변도 동일.
  - B. 사용대상 및 내용
    - i. 사용대상: 운동클럽, 상담사 모임, 방통대 모임, 학부모 모임, 이웃집 등
    - ii. 내용: 일상대화, 업무에 관한 공지나 투표 등.
  - C. 긴 메시지 사용여부
    - i. 잘 쓰지 않음. 길더라도 3줄(~4,50자)이내로 끝남.
    - ii. 업무상 내용도 간단하게 보냄. 주로 찬성, 반대로 끝나거나 일정을 잡는 것 정도
  - D. 사용시간
    - i. 오래 쓰지 않음. 10분이내로 끝남.
    - ii. 길게 주거나 받을 바에 전화 통화를 함.
    - iii. 단체방에서도 5~6번하면 끝남.

E. 메신저 앱 사용 시 노안의 영향

- i. 눈이 피곤하면 글을 읽는 것 자체가 귀찮다

4. 기타

- A. 메신저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메신저는 비 언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게 갑갑하다.
- B. 단체방의 장점은 단체의 의사결정
- C. 음성인식을 통해 메신저를 사용하려고 해도 오타가 많이 생긴다. 글을 쓸 때는 머리로 내용을 정리하고 쓰는데, 말로 하면 정리가 안되고 불필요한 내용까지 녹음되니까 수정작업을 하는 데 노력이 든다.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게 불편하다.
- D. 오랜 시간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.
- E. 운전 중과 같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힘들 때, 빨리 답해야 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왔을 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또한 빨리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
- F. 편리성이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 전화나 만남을 더 선호하게 된다.
- G. 기능이 바뀌었으면 하는 점은 없다. 필요한 건 내가 배우면 된다.